

■ 광주 중흥1동 '동네 지킴이 노인 봉사단'

“골목길 아침청소 하다 보면 운동은 덤, 마음까지 쾌청”

“봉사하는데 나이가 중요하나요. 동네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다 보면 운동도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일거양득(一舉兩得)이에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7년째 동네 골목길을 누비며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

광주시 북구 중흥1동(동장 김경순) ‘동네 지킴이 노인 봉사단’(단장 윤삼현)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골목길 쓰레기를 청소한다.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거나 공원에 있는 잡초도 뽑는다.

14명의 단원 중 4명은 전직 교사, 공군 조종사, 공무원 출신이고 나머지 10명은 식당업·건축자재상·자동차부품상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60대 9명, 70대 3명, 80대 2명

등 모두 ‘노인’이지만 봉사활동만큼은 단연 으뜸이다.

이들이 힘을 모은 것은 7년여 전인 2000년 4월. 당시 동네 노인당을 함께 다니던 이들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무언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며 의기투합, 봉사단을 꾸렸다.

이들은 우선 손자·손녀를 되는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근 중흥초등학교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거리 곳곳에 흩뿌려진 유해 전단지를 제거했다. 비가 오나 눈이 와도 2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학교 주변을 정화했다.

이들의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은 음료수와 간식거리, 아침 식사를 제공하며 마음을 보

냈다. 흥이 난 이들은 활동영역을 넓혔다. 2명씩 조를 편성, 7개조로 나뉘어 17동 72반에 이르는 중흥 1동 동네 곳곳을 깨끗하게 치워갔다. 일부 주민들은 때문에 ‘쓰레기를

전직 교사·조종사 등 14명 토요일 활동 주민들 호응 뜨거워...분위기 ‘화기애애’

청소해줘 고맙습니다. 다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는 감사의 메모를 붙이며 호응했다.

이들 덕에 쓰레기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동네 환경도 많이 나아졌다. ‘어르신들’



‘동네 지킴이 노인 봉사단’이 광주 중흥초등학교 앞에서 거리 청소를 마친 뒤 한 자리에 모여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동네 골목길을 누비며 100여 개의 쓰레기 봉투 10개 분량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들은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모든 주민이 대문을 활짝 열어봐 서로 거리낌없이 드나들며 훈훈한 정(情)을 나누는 동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삼현(82) 동네 지킴이 노인 봉사단장은 “주민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깨끗한 동네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단원 모두가 내 집앞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303) 김중두



광주지하철 2호선 광주시, 직접 발주

민자유치 계획 백지화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최대 1조3천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직접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2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의 안정성, 서비스, 정책의 일관성 등을 검토한 결과 민자유치보다 국·시비로 직접 발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호선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광주시는 이를 민자유치로 추진하려했으나 적정조건의 투자자가 없어 표류해왔다.

2012년 착공하게될 도시철도 2호선

은 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터미널~시청~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이어지는 환상(環狀)순환선(22.1km, 사업비 9천400억원)이며, 여기에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5.3km의 지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법(27.4km,사업비 1조3천억원) 등 2가지 있다.

시는 지선까지 포함해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효율성과 예산 등을 감안, 순환선 건설만을 권고한 상태다.

광주시는 지하철 1호선의 건립비용이 총 1조 6천억원이었으나 오는 2009년까지 1호선 부채의 83%를 상환하기 때문에 오는 2012년 착공하는 2호선의 재원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희광기자 chae@kwangju.co.kr

反FTA 시위 민노총 간부 징역 1년 6월

광주지법 제2형사부 강신중 부장판사는 7일 반 FTA 시위 과정에 광주시 청사를 파손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광주·전남본부장 정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한 채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

의견을 관철하려는 시위 문화는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씨의 행위에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의 범행이 능가, 현대하이테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여지는 있다”고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양이들과 함께 한 가을 밤 축제’

7일 광주문예회관에서 개막된 오리지널 뮤지컬 ‘캣츠’를 관람한 1천 700여명의 관객들은 잊을수 없는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었다.

‘메모리’ 부르자 관객 환호

○공연장 안으로 들어선 관객들은 밝은 달빛 아래 푸른빛이 도는 고양이들의 놀이터로 변신한 무대를 보고 감탄. 조명이 꺼지고 객석 곳곳에서 다양한 고양이들이 출몰하자 관객들은 비명과 함께 뜨거운 박수로 고양이들을 환영.

특히 2부가 시작되면서 아기 고양이 실라바미 한국어로 ‘메모리’를 부르자 관객들은 환호하며

■ ‘캣츠’ 공연 이모저모

뜨거운 박수.

○1부가 끝난 후 고양이들은 객석을 어슬렁거리며 관람객들에 즐거운 추억을 제공.

고양이들은 앙증맞은 포즈로 관객 무릎에 앉아 얼굴을 부비며 재롱을 부리고 부모와 함께 어린아이가 관객들은 고양이들을 직접 만져보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관객들은 마법사 고양이의 40바퀴가 넘는 회전에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공연이 끝난후 ‘스킵 블삭스’ 등 앙코르 곡이 흘러나오자 함께 박수를 치며 열띤 환호성.

○... ‘캣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문예회관을 찾은 관객들은 주최 측이 마련해준 ‘캣츠’ 포토존에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 또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팸플릿과 우산, 티셔츠 등 캐리어 상품을 구입하느라 로비는 북새통.

고양이들 객석 찾아 재롱

미처 표를 구입하지 못한 일부 관객들은 현장에서 표를 구입하기도 했는데, 주최 측은 13일까지 공연 당일 현장 판매(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일요일 낮 12시)를 계속할 예정.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영광 국도 확장 개통식

광주~영광 간 국도 22호선 확장 개통식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민주신당 이낙연 의원, 박준영 전남지사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도로 중간 구간인 함평읍 월아면 외치리에서 열렸다.

도로 확장에는 총 3천326억원이 투입됐으며 금광기(주) 등이 시공했다. 총연장 21km인 이 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광주~영광 간 통행시간이 4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고 향후 10년 동안 2천30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장마 끝’ 쾌청한 가을 날씨

9월 중 태풍 1개 상륙

광주·전남지역에 열흘 넘게 오던 비가 그치면서 주말과 휴일 모처럼 맑은하늘아래 전형적 초가을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8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다”며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24~28도까지 올라 낮에는 조금 덥겠다”고 예보했다.

휴일인 9일에도 구름이 조금 끼면서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에 안개가 짙게 깔 것으로 보여 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9호 태풍 ‘피토’(FITOW)가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속

출하고 있다.

7일 새벽 최대풍속 초속 40km의 강풍을 동반한 제9호 태풍 ‘피토’가 일본 관동 지방에 상륙하면서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항공기와 신간선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기상청은 이달 중 2~3개의 태풍이 더 발생하겠고, 이중 한 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상청 유희동 태풍항사과장은 “올해 현재 태풍이 평균 발생 개수인 27개에 훨씬 못 미치는 9개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태풍이 발생하는 북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높아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10월 중순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처 등 2명 흥기 살해
동업자 중상입힌 30대

무기징역

광주지법 제2형사부 강신중 부장판사는 7일 이혼한 아내 등 2명을 흥기로 살해하고 아내의 동업자 친구에게가까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경제적 이유로 아내 김모(38)씨와 위장 이혼 뒤 지난 7월1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A카페에서 김씨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던 동업자 정모(여·38)씨의 친구 신모(37)씨를 흥기로 살해하고 정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구청소년수련관장
횡령 혐의 영장

광주지방경찰청은 7일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방과 후 수업을 위해 국가와 시가 지원한 보조금 7천500여만 원을 빼돌린 광주시 동구청소년수련관 박모(43) 관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수련관 감사 14명의 통장에 ‘방과 후 아카데미’ 감사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5차례 걸쳐 7천500여만원을 횡령 혐의다.

경찰은 매년 1억5천만원씩 지원되는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감독 기능이 허술해 광주지역 다른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비슷한 횡령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애 급우 폭행 중학생 2명 검거

구타장면 동영상 촬영도

장애학생을 때리고 그 모습을 휴대 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7일 장애를 앓고 있는 같은 반 친구를 때리거나 놀린 B중학교 3학년 9명중 P(15)군 등 2명을 폭력 등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P군 등 9명은 지난 4일 광주시 남구 B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친구 S(15·지체장애 3급)군의 빵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동영상 찍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권투놀이’를 하던 중 옆에 있던 S군에게도 장난을 걸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S군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노인수 변호사 ‘탈레반’ 검찰 고발

○...2002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한 노인수(49·사시 23회) 변호사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와 관련, 탈레반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사실을 7일 뒤늦게 공개.

○...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포함한 4명이 지난달 중순께 ‘탈레반 대변인’ 격인 카리 유수프 아미디와 탈레반 조직원 성명불상자 수십 명을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탈레반 테러범들은 대한민국 국민 2명을 살해했으며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며 “형법상 살인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또 “아프가니스탄의 법을 적용해도 처벌할 수 있다”며 “국가는 살인범을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

가을 주말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

9월 8일
(음 7월 27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음	18~26℃
포항	구름 많음	19~25℃
여수	구름 많음	18~25℃
부산	구름 많음	19~26℃
대구	구름 많음	19~28℃
대전	구름 많음	19~26℃
충주	구름 많음	17~28℃
청주	구름 많음	19~27℃
서울	구름 많음	18~26℃
인천	구름 많음	18~27℃
안동	구름 많음	18~26℃
울릉도	구름 많음	18~26℃
독도	구름 많음	18~23℃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면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11:32 썰물 < 05:25
여수 밀물 < 07:13 썰물 < 01:24
19:51 썰물 < 13:12

▲해돋이 06:09 ▲해질 18:51 ▲달돋이 02:30 ▲달질 17: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8/28	20/29	19/28	19/28	20/29	19/27